

“실력 뽐내자”... 지역 장애인들 ‘e스포츠’로 하나 됐다

제1회 나주·광주장애인e스포츠대회 장애인체육회 지원한 전남 첫 대회 자격증 취득 부모 감독·코치 ‘눈길’ “지역 내 대회 전무...인프라 확대를”

“파이트! 할 수 있다! 해보자!” 휠체어에 앉은 장애인들이 경기를 뛰는 e스포츠 선수들을 보며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었다. 카트라이더 매치에서는 옆 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에 ‘넌편 내편’ 없이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광주·전남에서 모인 60명의 선수와 관계자들은 경쟁도 질투도 없이 e스포츠로 하나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일 광주 호남대 e스포츠교육원에서 ‘제1회 나주·광주 장애인e스포츠대회’가 열렸다. 나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나주시장애인체육회, 광주e스포츠교육원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으로 변모하고 있는 e스포츠를 통해 ‘지역 장애인들의 교류·화합’을 이끌고자 마련됐다. 종목은 △카트라이더(성인·청소년) △닌텐도 볼링 △닌텐도 테니스 등으로, 지역에서 장애인체육회 지원을 받아 e스포츠대회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전접수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회장에 들어선 장애인 선수·보호자들은 e스포츠 시설이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특히 전남에는 e스포츠경기장이 없어 광주에 마련된 인프라를 부러



지난 1일 광주 서구 광주e스포츠교육원에서 열린 ‘제1회 나주·광주지역 장애인e스포츠대회’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카트라이더 경기에 임하고 있다.

워하는 이들이 많았다.

휠체어를 타고 왔은 한상록(45)씨는 “게임은 남들과 같이해야 재밌는데, 광주는 언제든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있어 좋은 것 같다”며 “장애인 친화 시설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오가는 데 불편함 없이

편의성이 잘 구비돼 있다. 좋은 컨디션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대회가 시작되자 ‘하하호호’ 웃던 선수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경기에 임했다. 지난 1년동안 집과 교육기관 등에서 구슬땀

을 흘리며 갈고 닦은 실력을 여실히 뽐냈다.

볼링 부문 청각장애인 이경열(42) 선수는 “과거 볼링 선수를 준비했다. 점자귀가 들리지 않게 되면서 꿈을 포기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오랜 한을 풀었다”며 “게임이라 그런지 (난이도가) 더 쉬웠다. 그간 오토바이 배달과 연습을 병행하느라 힘들었다. 점수가 잘 나와 다행”이라고 활짝 웃었다.

아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한 ‘모자(母子)선수’도 있었다. 전광자(53)씨는 “지난해 장애인e스포츠전국대회(볼링 부문)에서 3등을 했다. 그 영광인지 아들도 e스포츠를 하고 싶다고 해 같이 대회를 준비했다”며 “지역에서는 이런 대회가 많이 없다. 좋은 기회를 통해 가족과 즐거운 추억 만들고 간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일부 경기 심판·코치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장애인e스포츠 선수 부모회’에서 맡았다. 부모들은 보호자로 따라다녀야 하는 특성상 자녀들의 배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고 결국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을 통해 ‘e스포츠 감독·심판 자격증’을 따다.

부모회 관계자는 “타 지역의 경우 학교·지자체 등에서 e스포츠 행사를 많이 연다. 광주·전남은 이런 인프라가 없어 이런 소규모 행사가 정말 값지다”며 “그간 나이·실력 등으로 대회에 나서지 못했던 선수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로 대회에 대한 갈증이 해소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에는 나주시·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도 참여해 장애인e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박소준 나주시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들이 e스포츠에 열정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지역과 통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변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경양 광주시당 장애인위원장도 “AI와 e스포츠는 광주가 ‘꿀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며 “다만 e스포츠는 현재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당 차원에서 예산 지원 등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황리에 대회를 마친 주최 측은 “지역 장애인 게임 산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재 나주시장애인e스포츠연맹회장은 “나주시 도움으로 장애인e스포츠행사가 무탈히 마무리 됐다. 이번 사례를 통해 다양한 장애인e스포츠 행사가 개최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지역 장애인e스포츠 인재양성·연구에도 물심양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 우승은 △카트라이더 학생부 박시후·성인부 김태혁 △닌텐도 볼링 백찬주 △닌텐도 테니스 박광일 선수가 차지했다. 이들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품이 수여됐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80년간 광주 평균기온 2.7도 ↑ ... ‘광프리카’ 현실로

급속한 도시화·산업발전 따라

광주지역의 평균 기온이 80년만에 2.7도가 오르는 등 갈수록 더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광프리카(광주+아프리카)’가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이 광주의 기후변화 85년사를 정리한 ‘기후로 바라본 광주 그리고 우리’에 따르면 1940년대 12.4도였던 광주의 기온은 2020년대 들어 2.7도

가 오른 15.1도를 기록하고 있다.

기온상승의 원인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발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980년대 13.2도였던 연평균 기온은 고도의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인 1990년대 0.8도나 상승, 연대별 기온 상승 폭이 가장 컸다.

1940년대만 해도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광주의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에 따라 1960년대 중반 이후 큰 상승폭을 보이며 최근에는 1.5도가량 높아

진 상황이다.

광주의 연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순위를 보면 1위부터 10위 중 4위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21세기 이후다.

지난 2018년에는 폭염 43일 열대야 30일을 기록하는 등 여름철 92일 중 절반가량 폭염이 이어졌고, 2023년에는 연평균 기온 15.3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값을 경신하기도 했다.

윤준명 기자

의장 선거에 ‘돈봉투 살포’ 의혹... 나주시의회 압수수색

혐의 추가 증거 확보 차원

경찰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나주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2일 전남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나주시의회에 수사관을 보내 일부 의원실과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나주시의회 하반기 선출 과정에서 시의원 간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

는다.

경찰은 특정 의장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도 해당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대상 등은 확인해주시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